

| 29일 Market Index |         |             |         |
|------------------|---------|-------------|---------|
| ▲ 코스피            | 4220.56 | ▲ 코스닥       | 932.59  |
| (+90.88)         |         | (+12.92)    |         |
| ▼ 금리 (한국예금)      | 2.939   | ▼ 환율 (원/달러) | 1432.95 |
| (-0.019)         |         | (-7.35)     |         |



청와대 본관에 ‘봉황기’ 게양  
29일 청와대 본관 앞에 봉황기가 게양되고 있다. 이로써 지난 2022년 5월 시작된 대통령실 ‘용산 시대’는 3년 7개월여 만에 막을 내리게 됐고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월요일부터 청와대 본관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관련기사 2면>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고환율 쇼크… 먹거리 물가 ‘빨간불’

이달 원·달러 환율 평균 1472원  
식품·유통업계, 원가부담 한계치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내년도 물가 전망에 경고등이 켜졌다. 원재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식품 업계와 수입 상품 비중이 높은 유통업계는 원가 부담이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분위기다. 편의점 자체브랜드(PB) 가격 인상을 시작으로 내년에도 먹거리 물가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7월 이후 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월 평균 환율은 7월 1377원에서 8월 1390원, 9월 1392원, 10월 1425원으로 1400원을 넘겼다. 11월에는 1460원으로 올랐고, 12월엔 1~19일 평균 1472원을 기록해 사실상 6개월 연속 상승세다.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평균 환율(1395원)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환율이 1480원대까지 치솟자 식품기업 전반에 원가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원재료뿐 아니라 포장재·부자재 등도 외화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 환율이 10원만 움직여도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상당수 기업이 올해 이미 한 차례 이상 가격을 인상한 터

라 당분간은 고환율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내수 비중이 높은 식품기업들의 부담은 더 크다. K-푸드 인기로 힘입어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고환율이 일정 부분 완충제 역할을 하지만, 내수 중심 기업들은 원가 상승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2.6% 상승해 1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여기에 정부의 물가 억제 기조와 인건비·물류비 등 고정비 상승까지 겹치며 기업 부담은 복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편의점 업계가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세븐일레븐은 내년 1월 1일부터 과자·음료·디저트 등 PB 상품 40여 종의 가격을 최대 25% 인상할 예정이다. GS25도 일부 PB 상품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CU는 아직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식음료 기업들의 대응 전략은 엇갈린다. 가격 인상이 가장 직접적인 해법이지만, 정부의 물가 관리 기조를 고려하면 현실적인 선택지가 제한적이다. 결국 수출 확대를 통해 고환율 충격을 상쇄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4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6834@

## 1인당 5만원씩 총 1조6850억? 쿠팡 보상안에 소비자는 ‘냉담’

김범석 의장, 사과문 이어 보상안  
3370만명 대상, 탈퇴고객 포함  
내달 15일 구매이용권 4종 지급  
소비자 “추가소비 유도 마케팅”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 5만원씩,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내놔다. 전일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는데 이어 보상안을 제시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여론과 정부, 국회의 전방위 압박에 일단 한 걸음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보상금 규모, 청문회 불출석 등의 논란이 남아있어 김 의장의 책임 회피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관련기사 3면>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고객 3370만명에 내년 1월15일부터 1인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총 1조6850억원 규모다. 보상 대상은 지난 11월 말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 개 계정 보유

고객 전체다. 와우 멤버십 회원은 물론 일반 회원과 이미 탈퇴한 고객까지 모두 포함된다.

쿠팡은 내년 1월 15일부터 대상 고객들에게 총 5만 원 상당의 구매이용권 4종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용권은 ▲로켓배송 등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2만원) ▲알렉스(R.LUX)(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각 카테고리별로 1회씩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보상안은 쿠팡이 김 의장의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지 하루 만에 나왔다. 쿠팡은 전일 ‘쿠팡 김범석 의장 사과문’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 발생 한달 만에 김 의장의 공식 입장을 공개했다. 김 의장은 사과문에서 “고객과 국민께 매우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려 참담한 심정”이라며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어진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보상안이 피해자들의 분노를 달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비자들

은 쿠팡과 쿠팡이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 각 5000원에 그치는 만큼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쿠팡트래블과 명품, 뷰티 플랫폼인 알렉스는 상대적으로 이용자가 많지 않을 뿐더러 2만원으로 이용하기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 탓이다.

한 소비자는 “트래블과 알렉스 쿠폰 2만원을 지급하는 건 오히려 추가 소비를 유도하는 마케팅 목적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위한 진정한 보상안을 마련한 건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범석 의장이 서면 사과문을 제출하고, 정작 청문회에는 불출석 사유를 제출한 것도 ‘원격 경영’ ‘책임 회피’라는 비난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장은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연석청문회에 해외 거주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있었던 국회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해 왔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 HBM3E 대세 지속… 삼성·SK, HBM4 격돌

엔비디아 블랙웰 AI칩 대부분 차지  
내년 ‘HBM3E’ 생산비중 66% 전망  
삼성·SK, 2월 HBM4 양산 ‘대결’

내년에도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HBM3E가 시장 주류를 유지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시에 시장 시선은 내년 하반기 엔비디아 차세대 인공지능(AI) 가속기 ‘루빈’ 출시 이후 본격 개화할 HBM4로 이동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장 경쟁 구도 재편에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HBM3E가 적용되는 엔비디아의 ‘블랙웰’이 AI칩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H200의 대중국 수출이 거론되는 가운데 내년에도 HBM3E가 전체 HBM 시장의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LS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내년 전체 HBM 생산에서 HBM3E 비중이 66%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87%)보다 21% 포인트 감소하지만 여전히 절반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HBM3E는 공급 부족과 수요 강세 현상이 맞물리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HBM3E의 계약 가격



SK하이닉스 이천 M16 전경. /SK하이닉스

도 기존보다 20% 인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차세대 메모리 전환기를 앞두고 이전 세대 제품 가격은 안정되거나 하락세를 보인다. 다만 HBM3E 가격은 오히려 높아지는 이례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빅테크기업들이 HBM3E 기반의 AI 칩 생산을 확대하는 가운데 주요 메모리사들이 HBM4 생산 역량을 선제적으로 집중하면서 HBM3E 공급 물량이 상대적으로 타이트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엔비디아의 경우 최신 AI칩 H200을 이르면 내년 2월 전으로 중국에 본격 수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H200에는 HBM3E가 대당 6개씩 들어간

다. 구글과 아마존 또한 최신 AI칩에 HBM3E를 탑재하고 있다. 구글의 텐서처리장치(TPU)에는 대당 HBM3E 8개가 들어가며 아마존의 ‘트레이니움3’에도 HBM3E가 4개씩 필요하다.

SK하이닉스가 HBM3E 공급에서 우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삼성전자도 최근 HBM3E 판매 확대와 품질 인증을 계기로 시장 입지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시에 시장 시선은 내년 하반기 본격 개화할 HBM4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HBM3E에서 형성된 시장 구도가 HBM4 국면에서 어떻게 재편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내년 2월을 목표로 HBM4 양산에 나서며 시장 주도권 확보 경쟁에 돌입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안정성과 수율을 비롯해 대량 공급 능력을 갖춘 SK하이닉스가 HBM4 시장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따른다.

SK하이닉스는 이천 M16 공장과 청주 M15X 신규 팹을 HBM4 생산의 전초기지로 삼는다.

<2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

### 메트로 한줄뉴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외부 부당한 간섭·압력 막아낼 것” /사진 뉴시스  
▲이준석 “보수 진영, 이해훈 배신자로 몰아세울 때가 아니라 비전과 답문 제시해야”

▲국장·팀장 대신 닉네임으로…행안부, 하루간 ‘호칭 자유의 날’ 운영  
▲정청래 “서해피격 사건은 조작기소…감찰 미진하면 특검해야”

▲輿, 연말 호남서 ‘표발 다지기’…“李정부, 폭탄급 예산”  
▲국방부 “北 핵잠 공개 및 순항미사일 발사, 한반도 평화 저해 행위”